

The Gospel of Mark

Sermon 28

Title: “The real filth is on the inside - Part 1”

Scripture: Mark 7:1-8

Date preached: March 12th 2023

Scripture: Mark 7:1-8

1 Then the Pharisees and some of the scribes came together to Him, having come from Jerusalem. 2 Now when they saw some of His disciples eat bread with defiled, that is, with unwashed hands, they found fault. 3 For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they wash *their* hands in a special way, holding the tradition of the elders. 4 *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hich they have received and hold, like the washing of cups, pitchers, copper vessels, and couches. 5 Then the Pharisees and scribes asked Him, “Why do Your disciples not walk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but eat bread with unwashed hands?” 6 He answered and said to them,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7 And in vain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8 For laying aside the commandment of God, you hold the tradition of men—the washing of pitchers and cups, and many other such things you do.”

1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2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4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닢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다). 5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물었다 6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Review

Today we are beginning chapter number 7. But before we look at today's scripture passage let us remind ourselves of where we are in the story. Last week we concluded our examination of chapter 6.

The events that we read about last time all took place in the region, or in the land of Gennesaret.

This was in Jesus day, and still is today a beautiful and fertile plain lying on the western side of the Sea of Galilee. It stretches from Capernaum to the city of Tiberias.

It was an area of rich, well watered soil which produced a wide range of fruits and vegetables.

Rabbi's of the time described it as being “the garden of God.” It sounds like the perfect place to live. Many people thought so and as a result this region was heavily populated.

When the Lord Jesus and the disciples arrived by boat and anchored they were immediately recognised. In an age of oral news-sharing we might wonder why it was that Jesus was immediately recognised. Today we are used to seeing famous people's faces on the TV, in newspapers or on the

게 잘 상사시켜 줍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자혜로 그분의 선하심을 얻거나 보증하거나 공로를 쌓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때때로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사람 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가리킵니다. 신자들 불신자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좋은 수확을 낼 때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기독교인 농부뿐만 아니라 이교도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에서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잔해 속에 묻힌 사람들을 찾아 구조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은총의 예입니다. 시장에 늘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반은총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십니다.

1 Then the Pharisees and some of the scribes came together to Him, having come from Jerusalem.

In typical Markan style chapter 7 begins without any preamble. He begins by telling us about a delegation made up of Pharisees and scribes who came from Jerusalem to seek out the Lord Jesus.

The Lord Jesus is still as far as we know on the we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Somewhere on the plain of Gennesaret. So the Pharisees and scribes made a journey of around 90 miles (144 km). That was a long way to go.

But it shows us that the Jewish authorities took what Jesus was doing very seriously. As the religious guardians of the nation it was one of their jobs to assess anyone making religious claims. They saw it as their duty to protect Israel from potential false prophets or false messiahs. This is the second time in Mark's gospel that such a delegation has sought out Jesus (Mark 3:22). On the first occasion the issue was that Jesus was "working" (healing the sick) on the Sabbath. Here, as we will later see the problem is that Jesus' disciples are ignoring the traditions regarding ritual cleansing.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When we read the gospels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are always the bad guys. We tend to feel very negatively about them. When they appear we probably feel like booing. But the truth is that their origins were good. It was only much later that they became bad. Let me briefly describe their beginnings. Later we will talk about how they went astray and became bad.

The history of God's people was often traumatic. From around 600 BC to 160 BC, the Jewish people suffered many trials. Solomon's Temple was destroyed in 587 BC and then God's people were exiled to Babylon for one hundred and fifty years. Finally when the Persians conquered Babylon God's people were allowed to return. Upon their return the Jewish people would rebuild the Temple. By 160 BC, the Jewish people had gone through several foreign rulers and following a successful revolt that year were finally free. Things however were not that simple. The problem was that Greek culture or Hellenism had captured peoples' hearts and minds. The issue for pious Jews was how to live and function in this now cosmopolitan Greek culture whilst retaining their essential Jewish character. More importantly they wanted to maintain their unique relationship to God. Enter onto the stage the sect later to be known as the Pharisees. They desired that Israel remain pure and undefiled. They said in effect,

"We're going to form a movement of devotion to God. We're going to be separated from the world."

This is where they get their name, Pharisee derives from the Hebrew word *prushim*, meaning

“separated ones.” So as I said they started well and had originally at least had good intentions. They wanted the Jewish people to remain devout and obedient to God.

What about the scribes? The scribes could trace their origins all the way back to the prophet Ezra. Ezra was a Bible expositor. He expounded the Scriptures to the people of Israel, he encouraged the people to apply the law of God to their own hearts. So although we often think of scribes as men trained to write, copy or record information they really fulfilled a much more important role. They were interpreters of God's law whose responsibility was to teach and instruct people on the Torah. This is why they are here on this occasion. They are legal experts who are set to challenge and accuse the Lord Jesus. Let us continue.

전형적인 Markan 스타일에서 7 장은 서문 없이 시작됩니다. 그는 주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계십니다. 게네사렛 풍야 어딘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약 144 □□□□□□□□□□ .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 당국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국가의 종교적 수호자로서 종교적 주장을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거짓 예언자나 거짓 메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러한 대표단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막 3:22). 첫 번째로 쟁점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병든 자를 고치심)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의식에 관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마도 야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의 기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빠지게 된 것은 훨씬 나중에였습니다. 그들의 시작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길을 잃고 나빠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종종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600 년경부터 기원전 160 년까지 유대 민족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BC 587 년에 파괴되었고 그 후 하나님의 백성은 백오십 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졌습니다. 마침내 페르시아인들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유대 민족은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기원전 160 년까지 유대 민족은 여러 외국 통치자를 거쳤고 성공적인 반란에 이어 그 해에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리스 문화나 헬레니즘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본질적인 유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세계적인 그리스 문화에서 어떻게 살고 기능을 발휘하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바리새인으로 알려진 분파를 무대에 올리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이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프루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잘 시작했고 원래 적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원을 예언자 에스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해석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설명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적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서기관을 정보를 쓰고, 복사하고, 기록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토리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 도전하고 고발하기로 작정한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계속합시다.

2 Now when they saw some of His disciples eat bread with defiled, that is, with unwashed hands, they found fault. 3 For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they wash *their* hands in a special way, holding the tradition of the elders. 4 *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hich they have received and hold, like the washing of cups, pitchers, copper vessels, and couches.*

The truth is that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had not come from Jerusalem to honestly assess and evaluate Jesus. They had already made up their minds that they didn't like Him.

They were just looking for any excuse to accuse or challenge Him. They do not have to wait very long. As they are closely observing Jesus' disciples they notice that some of them were eating bread without washing their hands first.

Now I'm sure that when you were a child and you came in from outside to eat dinner your mother told you to wash your hands before sitting at the table. As parents it's something we all drilled into our children. Wash you hands before you eat. We would define this as practising good hygiene. But of course that's not what's in view here. The Pharisees were not offended because James and John were eating with dirty hands.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ritual or ceremonial washing.

Actually, ritual washing was not really an effective means of washing your hands. It was not good hygiene and was not intended to be. If your hands were really dirty. Covered in dirt from a day in the fields for example you would need to wash them properly, before going through the ritual washing.

So how did the Jews wash their hands for ritual purification? Let us go through the process. After this you will be able to adopt this in your own homes.

- 1 Hold up your right hand.
- 2 Pour water over your fingers and let it run down off your elbow
- 3 Do the same for your left hand
- 4 Make a fist with your right hand and wipe it with your left hand
- 5 Repeat this process with the left hand
- 6 Reverse steps 2 and 3. Tip water from the elbow so that it runs off the fingers

If you didn't follow this pattern exactly you were guilty of breaking the law. This process was not only done before the meal began, but often before every course of the meal. Time for dessert,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I should also add that these laws were considered to be very serious. Rabbi's even taught that bread eaten with unwashed hands was no better than excrement (dung).

Of course cleaning or ritual purification was not only limited to the hands. If a Jew went into an area in which there were Gentiles they also had to wash. However on this occasion their whole bodies had been corrupted. They then had to go into what in essence was a bath called a *mikveh* in order to be cleansed. This washing was not only restricted to people. Objects too needed to be constantly washed and purified. This included cups, pitchers or cooking pots, copper vessels, and couches which might mean a table or a bed. Life was very complicated for the strict Jew.

Why you might ask did they follow all these strict and constricting laws? After all hand washing before eating is not actually commanded in the Hebrew Scriptures. The only people commanded to wash their hands were the priests. In Exodus (30:18-21, 40:31-32) we see that they were to wash their hands before approaching the alter and offering sacrifices. So now we come to the problem with the Pharisees. Now we arrive at what had gone wrong with their movement.

You see these "laws" that had built up and developed over time were not things commanded in scripture. They were instead part of an oral law or tradition that was man made. Over time rabbi's

had got together and developed a system that they considered to be of equal authority to the bible (God's Word). This is where hand washing and all the laws regarding the sabbath came from. Over centuries these were developed and then collected in the Mishneh and the Talmud.

As I said before the Pharisees had started off well, with good intentions. In fact even the oral traditions were initially well meaning. As Rabbi Akiva said,

“The oral law acts like a fence around the Law to protect it, so we make sure that we don't transgress it. So, if you do these things in the oral law, you'll be sure not to break the written law of God.”

However the traditions had become too important. They were crushing and burdensome for everyday people to keep. Worse even than this was that they rivalled God's Word. Nothing that is the invention of human beings must ever rival or challenge God's Word. God's Word is the standard that we are commanded to follow.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illegible]

- 1 오른손을 들어라.
- 2 손가락에 물을 붓고 팔꿈치에서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 3 왼손도 똑같이 한다
- 4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 닦는다.
- 5 왼손으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 6 2 단계와 3 단계를 반대로 합니다. 팔꿈치에서 물을 기울여 손가락에서 흐르도록 합니다.

이 패턴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식사가 시작되기 전뿐만 아니라 종종 모든 식사 과정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저트 시간, 손 씻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또한 이러한 법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덧붙여야 합니다. 랍비들은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빵은 배설물(똥)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청소나 의례적 정화는 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유대인이 아병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들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온 몸이 부패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깨끗해지기 위해 본질적으로 mikveh라고 불리는 목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씻음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체 역시 지속적으로 세척하고 정화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컵, 투수 또는 요리 냄비, 구리 용기 및 테이블이나 침대를 의미할 수 있는 침상이 포함됩니다. 엄격한 유대인의 삶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모든 엄격하고 제한적인 법률을 따랐는지 물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손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은

□ □ □ □ □ □ □ □ □ □ 출애굽기 (30:18-21, 40:31-32)에서 우리는 그들이 제단에 접근하여 제사를 드리

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함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되고 발전된 이 "법"은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구전법이나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랍비들은 함께 모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손 씻기와 안식일에 관한 모든 법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것들이 개발되어 마슈네와 탈무드에 수집되었습니다. □ □ □□ 말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시작했습니다. □ □ □□ □□□ □□□ □□□ □□□□□□ 랍비 아 □□□□□□□□, “구전법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구전 율법에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속인이 자기에게는 박하고 부담스러웠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5 Then the Pharisees and scribes asked Him, “Why do Your disciples not walk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but eat bread with unwashed hands?”

The first thing I want you to note here is how the question is phrased. The Pharisees and scribes do not ask the “offending” disciples why they are eating bread without first going through the ritual. Instead, they ask Jesus why **His** followers are not following the Jewish traditions. As their leader the Lord Jesus was responsible, at least in their eyes for the conduct of His disciples. They suspected that the disciples' failure to wash properly is symptomatic of a bigger problem. They assume that it indicates that Jesus disregarded all of their precious traditions. The expression “walk” used here is a Hebrew figure of speech meaning habitual conduct. So we might rephrase it as, “Why do your disciples not consistently keep the oral law.” How will the Lord Jesus respond to their challenge? Let us read on and see.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질문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빵을 먹는 이유를 “범죠히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로서 주 예수님은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분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제대로 씻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의 징후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가 그들의 소중한 전통을 모두 무시했음을 나타낸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건다”라는 표현은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구전 율법을 일관되게 지키지 않습니까?”라고 비판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계속 읽고 보자.

6 He answered and said to them,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7 And in vain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8 For laying aside the commandment of God, you hold the tradition of men—the washing of pitchers and cups, and many other such things you do.”

The Lord Jesus quite rightly responds in very strong terms. Some forms of legalism are quite benign. For example in the Church of England in which I grew up there is a tradition that when you enter the church you perform a small bow in the direction of the altar. It was a tradition that was never strictly enforced. You were not made to do it. But the Pharisees were on an altogether different and dangerous level. Rather than protecting God's law, their excessive legalistic

requirements distorted and even contradicted the law. Instead of bringing people closer to God they had erected barriers that prevented people from drawing near to God. Also their complex set of trivial man made traditions served to exclude people. The Pharisees discounted everyone who didn't perfectly keep the traditions. In essence, they said, well, if you can't follow these traditions you are a sinner and God will not be interested in you. This acted to discourage many people from seeking after God. Know wonder the Lord Jesus is righteously angry.

He refers to them as hypocrites. Did you know that Jesus uses the word hypocrite twenty-three times in the Gospels. On twenty-one of these occasions he's speaking to religious leaders. The word hypocrite derives from the Greek word *Hupokrités*. A *hupokrites* was an actor on the stage.

Today actors play different roles in a play by changing costumes, or by putting on wigs or other disguises. They did not do this in ancient Greece. The way they changed roles was to put on different masks. When you put on a mask you could pretend to be someone else but who you really were was always underneath. Today we describe someone as a hypocrite because they act or play a role without sincerity. They are just a pretender. Often non-believers accuse Christians of being hypocrites. They look at our lives and say, well you say that you follow Christ and seek to be like Him, and yet you act in all these contrary ways. I think you are a hypocrite, someone just pretending to be a Christian. Sadly how true this often is.

The Lord Jesus then compares the Pharisees and Scribes of His day with those that the prophet Isaiah wrote about. He quotes here from Isaiah chapter 29. Isaiah is describing people who worship God in vain. They honour God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remain cold and indifferent. Let us think for a moment about human anatomy. Our mouths, lips and tongues are located close to, or on the surface. Our hearts by contrast are deep within us. How easy it is to say things with our mouths and lips but not really feel the same things deep inside. We have an expression in English to describe the idea of saying something but not really feeling or acting upon it. We call it "lip service." So for example I might say to you, "You are a really wonderful friend. I really value your friendship." If I then never do anything to back up my words, call you, arrange to meet you could accuse me of merely paying lip service to our friendship.

This is the accusation Jesus is levelling at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claim to love God and want to live lives that please Him. But your actions and deeds deny what you say. The Pharisees appeared to be holy men. They were certainly dedicated and committed. Unfortunately they were dedicated and committed to the wrong things. The Lord Jesus here highlights the two areas in which they are going wrong.

주 예수님은 매우 강력한 용어로 매우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형태의 율법주의는 꽤 온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난 영국 교회에는 교회에 들어갈 때 제단 방향으로 작은 절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결코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 전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고 위험한 수준에 있었다. 그들의 지나친 율법주의적 요구는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고 모순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의 복잡하고 사소한 인간이 만든 전통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당신이 이러한 전통을 따를 수 없다면 당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의롭게 화를 내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노동 위선자를 23 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중 21 회에 걸쳐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Hupokrités* 에서 파생됩니다. *hupokrites* 는 무대 위의 배우였습니다. 오늘날 배우들은 의상을 바꾸거나 가발을 쓰거나 다른 변장을 함으로써 연극에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역할을 바꾸는 방식은 다른 가면을 쓰는 것이었다. 가면을 쓰면 다

른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자신은 항상 그 밑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성 없이 행동하거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기꾼일 뿐입니다. 종종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든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당신이 기독교인인 척하는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종종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자들과 비교하십니다. 그는 여기서 이사야 29 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차갑고 무관심합니다. 인체 해부학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입 입술 및 혀는 표면에 가깝거나 표면에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것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느끼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설명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우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화를 걸고 만나기로 약속한다면 우리 우정에 대해 단지 립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과 행동은 당신이 말한 것을 부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헌신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잘못된 일에 헌신하고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두 영역을 강조하십니다.

1 They were teaching as doctrine the commandments of men.

As a pastor and bible teacher I need to be very careful that I accurately teach what the bible says. I must ensure that I do not add my own opinions or interpretations whilst telling you that this is what the bible says. For example take the issue of drinking alcohol. What does the bible say on the subject? Basically it says that moderate and controlled drinking is acceptable. You may wish that it openly condemned drinking but it does not. What it condemns is drunkenness. So I cannot say to you it's a sin, and the bible forbids you from drinking any alcohol. This would be teaching the commandments of men (myself) and trying to pass it off as being what God commands. This is one of the pillars of legalism. Taking a commandment or opinion of men and teaching or promoting it as a doctrine from God.

목회자이자 성경 교사로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을 추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주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온건하고 절제된 음주가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음주를 비난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성경은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나 자신)을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나 의견을 취하여 하나님의 교리로 가르치거나 홍보하는 것

2 They were rejecting what God commanded in favour of their own traditions

This is another pillar of legalism. It is the next step up from adding your man made traditions to God's commands. What tends to happen with legalists is that over time they reject God's commands in order to prioritise their own tradition. Again the subject of alcohol is a good example. I'm sure many of you grew up in, or have attended churches in which you are taught that drinking alcohol is a terrible sin and something no Christian should ever do. This is not what God's Word says, its church tradition.

us or what they think about us. Are you here this morning in person but your heart and affections are elsewhere. Are you singing praise to God but with your lips only? Are you reading your bible only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or to follow a bible reading plan? Are you putting money in the offering box reluctantly? Let us be aware of areas in our life in which we are just playing a role. May we seek out God, confess where our hearts have grown cold and strive to live authentic Christian lives that please and honour Him.

[illegible]

2 The danger of tradition

The life of a Pharisee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Imagine having every aspect of your existence bound and guided by detailed laws and regulations. So many things to do, or not do. Aren't you glad that burden is not resting upon your shoulders. Of course traditions did not end with the Pharisees. Today we are often guided, bound and constrained by traditions. Every church has its own. I often talk about the Church of England and its rigid traditions. To challenge or try to change these traditions is almost impossible. I spoke a few years ago to a vicar in the C of E who told me that many found the service order and words to be old-fashioned and boring. When I suggested modernising or updating the vicar looked at me as if I was crazy. Even less liturgical churches have their own traditions. They worship in particular ways. Often these traditions are fairly harmless. We have a tradition for example of including a reading of the Apostles Creed as part of our worship. Some may look at this and think it is a pointless or unnecessary tradition. I chose to include it because it serves as a good summary statement of what we believe. If churches want to follow or reject such traditions it is entirely up to them. However there can be times when traditions can become constraining or even dangerous. At times we can so tightly cling to our traditions that we reject or ignore what God may be telling us. Just as with the Pharisees we can elevate our man made traditions and place them over what God is revealing. Let us then be careful never to place our man made traditions over what God wants and expects from us.

바리새인의 삶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존재의 모든 측면이 상쇄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 구속되고 인도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짐이 지워지지 않은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전통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전통의 인도를 받고, 구속을 받으며, 제약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자체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영국 성공회와 그 엄격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도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C of E 의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명령과 단어가 구식이고 지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 □ □ □ □ 데이트를 제안했을 때 목사는 나를 마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덜 잔여적인 교회는 자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숭배합니다. 종종 이러한 전통은 상당히 무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배의 일부로 사도신경을 읽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한 진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전통을 따르거나 거부하려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 위험해질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통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높이고 하나님이 계사하시는 것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위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